

엄씨가 되었다. 일명은 준遵, 자는 자릉子陵이며 소시에 후한을 일으킨 광무제光武帝와 함께 공부하며 노닐었다. 그런데 광무제가 왕망王莽의 신新을 멸하고 즉위하자 변성명을 하고 은둔해 살면서 나타나지 않았다. 광무제가 그 어진 것을 알고 탐문해 찾아내서는 불려다 간의대부諫議大夫를 제수했으나 취임하지 않고 부춘산富春山에 들어가 밭갈고 낚시하며 종생하였다. 후세 사람들이 그 낚시하던 곳을 엄능뢰嚴陵瀨라 하였다. 정종이 경연에서 권근에게 길재의 일을 어찌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으니 권근이 ‘엄광이 굽하지 않으니 광무제가 이를 좇았다 고 한 것은 이 고사를 예로 든 것이다. 엄광이 소시의 광무제와 막역히 지냈던 것처럼 길재도 옛적의 세자 태종과 교유했기 때문이었다.

양촌 권근 또한 그 사적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생애를 주해하지 않는다. 제목 길재항절吉再抗節은 길재가 절개로 맞섰다는 뜻이다.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송산왕기이성회崧山王氣已成灰 : 송악松嶽의 왕기가 이미 사그러지고
진주용흥태운개眞主龍興泰運開 : 진짜 임금 용처럼 일어나 큰 운 여는데
상련구군전일절尙戀舊君全一節 : 그래도 옛임금 그려 한 절개 온전히 하고자
표연귀와자릉대飄然歸臥子陵臺 : 표연히 돌아가 엄자릉의 터에 누웠네
정정고절름추상亭亭高節凜秋霜 : 정정히 높은 기절 가을 서리보다 차고
직욕추종아수양直欲追 餓首陽 : 곧바로 수양산首陽山에서 굶은 백이숙제伯夷叔齊 뒤쫓으니
성대포송창의렬聖代褒崇彰義烈 : 성인의 시대에 의열을 드높이 포상하여
삼한억재수강상三韓億載樹綱常 : 삼한에 억만년토록 강상이 서게 했네

215. 원계함진原桂陷陳

홍무洪武(명 태조) 정축丁丑(1397) 5월에 왜적이 침구하여 선주宣州(선천)를 에워싸니 이성泥城(평북 창성군昌城郡의 일부)의 만호萬戶 김원계金原桂가 군사를 거느리고 구원하러 갔다. 왜적이 싸움에 패하여 퇴각하니 김원계가 이기는 기세를 타고 추격하다가 는 오랑캐 사이로 돌입해서 마침내 도적에게 해를 입었다.

6월에 간관諫官이 말씀올리기를 ‘원계가 평소에도 날랜 용맹의 재주를 지녔다가 도적이 선주를 포위했다는 소식에 분연히 몸을 돌보지 않고 곧 외로운 군대를 거느리고 갑절로 치달려가서는 거둬 에워싼 것을 풀어 거의 떨어지게 된 성을 온전히 하고 패배해 도망하는 적을 추격해서는 충돌하였는데 적진에 함몰되어 화살이 떨어지고 힘이 다해서 필경은 떨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 몸이 죽음으로써 수많은 백성의 목숨을 바꾼 것이니 그 공이 열렬하여 죽어서도 이지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유사有司로 하여금 관작을 추증케 하시고 또한 그 본처本處(만호부萬戶府가 있던 곳)에 사당을 세워 제사를 받들게 하며 그 자손을 녹용錄用하여 충성스런 훈령을 복돋아 위로하여 후인을 권면勸勉케 하신다면 국가의 다행함이 심히 크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재가하였다.

김원계金原桂에 대한 신상기록은 찾

아보기 어렵다. 세종 13년, 1431년에 만든 삼강행실도의 충신편에 우리나라 사람이 많이 들어가 있을 때에도 김원계가 그 마지막에 들어 있었고, 성종 20년, 1489년에 중간하면서 이를 대폭 줄여 우리나라 사람 충신을 6인으로 줄일 때에도 김원계는 실려 남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신상기록이 어디에도 전함이 없는 것은 이상하다. 다만 조선 태조실록太祖實錄에 두 군데 김원계에 관한 기록이 실려 있다.

그 하나는 태조 6년, 1397년 5월 22일 계유癸酉의 조條이다. 거기에 “왜구가 선주성宣州城을 에우니 이성도부만호泥城道副萬戶 김원계가 병사를 거느리고 가 구원하였는데 도적이 패하여 달아나니 원계가 이기는 기운을 타고 도적 가운데로 돌입하여 도적이 해치는 바 되었다. 상께서 이를 듣고 통도痛悼하며 도당都堂(문하부)에 명하여 그 휘하군사를 국문하여 그를 구출하지 아니한 죄를 벌하라 하였다. 다시 도당에 명하여 ‘풍해豐海(황해도)와 평양·안주安州 3도의 수군만호水軍萬戶가 왜적을 잡지 못하고 거둬 패하여 달아나 무너졌으니 법에 따라 주살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즉 3도만호로서 우두머리되는 자를 울에 의거해 다스려 군법을 엄하게 하라’ 하였다”고 나온다.

그 둘은 같은 해 6월 8일 무자戊子조에 “간관이 말씀올리기를 ‘이성만호 김원계가, 도적이 선주를 포위했다는 소식을 듣고 곧 고군孤軍을 거느리고 배도倍道로 달려가 그 에움을 풀고는 이김을 타고 북으로 추격하여 마침내 도적의 가운데로 들어가 적이 해치는 바 되었습니다. 원계가 평소에 효용曉勇의 재주로서 분연히 일어나 일신을 돌보지 않고 거의 함락되는 성을 온전히 하였으니 그 한 몸의 죽음으로 만백성의 삶을 바꾸어 그 공이 죽어서도 또한 이지러지지 않습니다. 원컨대 유사에게 명하시어 관직을 추증하고 선주에 사당을 세워 제사를 받들게 하며 그 자손을 서용敍用하여 이로써 충혼忠魂을 위로하고 이로써 후래인後來人을 권면케 하소서’ 하니 상께서 이를 좇았다”고 나오는 것이다.

제목 원계함진原桂陷陳은 김원계가 적진에서 함몰되었다는 뜻이고 그 찬시는 다음과 같다.

왜노구사사완홍倭奴窺伺肆頑兇 : 왜적의 호시탐탐 엿보기 끈질기고 흉포하더니
내구선성질악풍來寇宣城疾若風 : 선주성에 침구하여 빠르게 질풍같은데
철갑장군심담장鐵甲將軍心膽壯 : 철갑한 장군의 마음과 담력 굳세어서
해위최적수변공解圍 敵樹邊功 : 에움 풀고 적을 꺾어 변방의 공 세웠네
장구원투구위성長驅遠闢救危城 : 길게 달려와 멀리서 싸워 위태로운 성 구하매
임난하증해차생臨難何曾愛此生 : 난에 임하여 뉘 일찍이 이 삶을 아꼈으랴
의기름연충관일義氣凜然忠貫日 : 의로운 기개 넘림하여 충성이 해를 꿰니
성조추증중포정聖朝追增重褒旌 : 성인의 조정 벼슬 추증하고 정려旌閭로 포상하였네.

216. 전진유제田眞諭弟

전진田眞과 전경田慶·전광田廣 형제 3인이 재산을 나누고자 하였는데 당당 앞에 있는 자형紫荊 한 그루가 잎이

무성하여 좋은 꽃을 피웠다. 밤에 이를 셋으로 잘라 나누기로 의논했더니 아침에 날이 밝자 스스로 초췌히 마르는 것이었다. 이를 보고 전진이 곧 눈물을 흘리며 ‘나무가 본디 같은 한 뿌리인데 갈라 뚝다는 말을 듣고도 오히려 이와 같거늘 하물며 사람이 되어 어찌 이와 같지 못하리오’ 하고 이로부터 그 형제가 다시는 분재分財를 아니하였다.

전진이제경광기명田眞二弟慶廣其名 : 전진에게 두 아우 있으니 경과 광이 그 이름인데
기분재산가유자형既分財產家有紫荊 : 재산을 나누고 나니 집에 자형나무 있었네
의파위삼수내야취議破爲三樹乃夜悴 : 갈라 셋으로 나누려 하니 나무가 밤에 시들었고
왈목유연향오곤계日木猶然 吾昆季 : 나무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우리 형제리요
본시동기하인리거本是同氣何忍離居 : 본디가 동기이어늘 어찌 차마 떨어져 살랴
골육졸합근가재소骨肉卒合根柯再蘇 : 뼈와 살이 마침내 합치니 뿌리와 가지 다시 살아났다네

형제가 형荊나무를 나누고자 하니 나무가 스스로 시들다가 다시 합치기에 이르자 나무가 도로 소생하였다. 대저 우리 몸의 기운이 천지를 채우는데 그 지위의 크고 작음과 미치는 바의 너르고 좁음이 있다. 필부匹夫가 비록 미미하여도 스스로 한 집안의 장이 되면 그 기운이 또한 한 집안의 천지에 미치는 것이다. 전진이 형제의 맏이이자 한 집안의 가주家主로서 효도와 우애의 지극함이 신명神明에 통하였는데 그 아우들이 재산을 분할하고자 하기에 이르러 간곡히 금했으나 듣지 않으므로 그 다툼의 단서가 생기는지라 그 마음에 따라 분재分財를 하다가 마당에 서 있는 나무까지도 삼분三分하기에 이르니 그가 맏이라고 해서 터럭만큼이라도 자기 것으로 더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는 바였다. 신명이 그 성실함을 보고 감응하여 나무가 마침내 스스로 시드니 전진이 이로 말미암아 그 아우들을 타이르고 아우들이 또한 마음으로 감복하여 다시는 분재를 아니하려 하고 나무 또한 다시 소생하여 응답하는 것이 메아리와 같았으니 이것이 어찌 신명이 성감誠感하고 천지에 그 기운이 통하지 아니하고 가능한 것이었겠는가.

제목 전진유제田眞諭弟는 전진이 아우를 깨우쳤다는 뜻이다. 전진은 한나라의 서율 장안長安 사람이고 그의 이야기가 형제간 우애자友愛者的 설화를 모은 상우록尙友錄이라는 책에 올랐다. 자형紫荊은 마편초과馬鞭草科의 낙엽관목으로 작살나무로 알려졌다. 또 는 자주紫珠라고도 하여 박태기나무라고도 한다. 이 자형나무는 또한 자형화紫荊花라는 꽃을 핀다. 그리고 이 자형나무는 이같은 설화로 말미암아 동기간의 우애를 상징하는 화수花樹가 되었고 이를 따서 종족宗族이나 친족親族이 모이는 모꼬지를 오늘날 화수회花樹會라 부르게 되었다.

217. 노고포장魯姑抱長

노고魯姑는 중국 춘추시대 노魯나라 사람이다. 고姑는 부녀의 뜻이다. 제목

노고포장은 노나라 여자가 만아이를 품고 피란했다는 뜻이다.

제齊나라가 노나라를 침구해 들어와 쫓겨 밀리는데 노고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노고가 마침내 작은아이를 버리고 큰아이를 안고 달려갔다. 이를 본 제나라 군사가 묻기를 ‘어째서 작은애를 버리고 큰애를 안고 가느냐’ 하니 노고가 ‘큰애는 지아비의 전처 소생인데 남편이 죽으면서 내게 지켜 보살필 것을 부탁했으므로 그 말을 감히 잊을 수가 없어서입니다’ 하였다. 제나라 군사가 이를 듣고는 탄식하며 ‘이는 의로운 여자이니 이 나라에 반드시 의사義士가 있을 것이다’ 하고 군사를 거두어 물러갔다.

노고장아魯姑將兒 : 노고가 아이를 데리고
주봉제구走逢齊寇 : 달리다 제나라 침구를 만나니
문여하심問汝何心 : 묻기를 네 무슨 마음으로
포장기유抱長棄幼 : 큰애를 안고 어린 것을 버렸느냐 하거늘
전부유고前婦遺孤 : 전처가 낳은 고아인데
부망축아夫亡矚我 : 지아비가 죽으며 내게 부탁한지라
수재위급雖在危急 : 비록 위급할지라도
배언불가背言不可 : 그 말을 저버릴 수 없네
여유중의女猶重義 : 여자도 이처럼 의리가 무거운데
기왈무인豈曰無人 : 어찌 여기에 사람이 없다 하리오
회과권갑廻戈卷甲 : 창끝을 올리고 갑옷을 말아
양국교친兩國交親 : 두 나라 화친을 나누었네

안씨가훈顔氏家訓에 이르기를 ‘무릇 용렬한 사람의 후처는 반드시 전처의 자식을 평상시에도 오히려 홀대하는데 하물며 위급한 난을 만나서이라. 노고가 제나라 침구가 급박하여 창졸한 때에도 지아비의 평일 부탁을 잊지 않고 되레 자기가 사랑하는 어린 것을 버렸으니 의열義烈的 지극함이 그 어떠한가. 제나라 군사가 듣고 그 의열에 탄복하여 갑옷을 벗어 말아 가지고 돌아갔으니 두 나라가 친교를 맺은 것이다. 한 부녀자가 대의를 세우기에 용맹하여 그 효험이 이와 같았으니 하물며 장부에 있어서리요’ 하였다. 안씨가훈은 중국의 북제北齊 시대 안지추顔之推라는 사람이 지은 교훈서이다. 이 이야기는 노고가 자식을 버렸다는 뜻의 ‘노고기자魯姑棄子’라고도 하며 한나라 유향劉向의 열녀전烈女傳에는 ‘노의고자魯義姑’라는 제목으로 나오거니와 여기에서는 ‘제나라 임금이 노나라를 공격하니 의고義姑가 절개가 있어 군사를 보고 산으로 도주하되 자식을 버리고 조카를 안고 달렸다고 하여 전처의 자식이 조카로 바뀌어 나온다. 또 당唐나라 시성 이백李白은 열녀의 비문 율양늬수정의녀비명 陽瀨水貞義女碑銘이라는 것을 지었는데 거기에서 ‘노고가 자식을 버리니 3군의 무리가 물러갔고 빨래하던 노파가 굶주린 한신韓信에게 밥을 주어 천금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하였다.